주간건설 Review

496호 2017.7.28(금)



(사)한국건설경영협회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홈페이지 : http://www.kfcc.or.kr, 연 락 처 : 02-771-7936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주간건설 Review

CONTENTS

▣ 업계 동향

- 한화건설 '장애우의 꿈' 도서관으로 응원
- 현대건설,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'에이치 컨텍' 출범
- 삼성물산, 2017 래미안 프리미엄 블렌딩 개최

▣ 건설경제 일반동향

- GI허브, 전 세계 인프라 전망 보고서
- 하반기 도로공사 발주 6조4,764억원 규모

▣ 건설 제도정책 동향

-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 발표
- '하도급법' 개정안, 의원입법 발의
-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 개정안, 의원입법 발의

◈ 한화건설 '장애우의 꿈' 도서관으로 응원



서울 도봉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'꿈에그린도서관' 조성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건설 신입사원들

○ 7월27일 한화건설 신입사원들은 서울 도봉구 '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'에서 '꿈에그린도서관' 조성 봉사활동을 펼쳤음

○ 꿈에그린도서관 조성 사업은 장애인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만드는 활동으로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7년째 진행돼온 한화건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임

○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입사원과 직원 20명은 책상 및 붙박이책장을 설치하고 표면 사포 작업을 하는 등의 자원봉사과 함께 도서 진열, 공사 자재 정리 및 청소 등을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건립을 도왔음

○ 한편 한화건설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, 어린이재단, 성동장애인복지관, 강화 성안나의 집 등과 연계해 지난해 100여회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했고 2,0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으며, 올해도 2,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1만여시간에 걸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힘

◈ 현대건설,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'에이치 컨텍' 출범

○ 7월26일 현대건설은 업계 처음으로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'에이치 컨텍(H CONTECH)'을 출범했다고 밝힘

○ 현대건설의 'H'와 건설(Construction) 및 기술(Technology)의 영어 앞글자를 딴 '에이치 컨텍(H CONTECH)' 봉사단은 지난 7월21일 국제개발협력단체 '코피온'과 함께 1기 발대식을 가졌음

○ 현대건설 임직원 10명과 대학생 봉사자 35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된 '에이치 컨텍(H CONTECH)' 봉사단은 1기는 12박13일 일정으로 8월14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

룰라 지역으로 출국해 마을 위생 시설 건립 및 교육봉사를 진행한 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건설기술 및 양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가질 예정



해외기술봉사단 '에이치 컨텍(H ConTech)' 1기 발대식

○ 현대건설은 "이번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식수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"며 "앞으로도 적정기술 제안과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유가치창출(CSV) 활동을 이어갈 것"이라고 밝힘

◈ 삼성물산, 2017 래미안 프리미엄 블렌딩 개최

○ 삼성물산은 7월22일과 23일 양일간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'2017 래미안 프리미엄 블렌딩'을 개최하였음



'2017 래미안 프리미엄 블렌딩'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

○ 이번 행사에서 삼성물산은 올해 래미안 분양 예정단지와 하반기 부동산 재테크 정보 등을 문화와 가치, 삶이 어우러진 ' 프리미엄 블렌딩'이란 주제의 총 3부로 나눠 진행하였음

○ 1부는 생활에 풍미를 더해주는 문화(culture) 프로그램으로 '향긋한 커피 강의'가 진행되었으며, 2부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치(value)를 주제로 '2017 하반기 부동산 재테크 정보' 제공, 3부는 2017년 래미안 분양단지 소개 및 분양정보를 제공해 래미안에서 행복한 삶(life)을 담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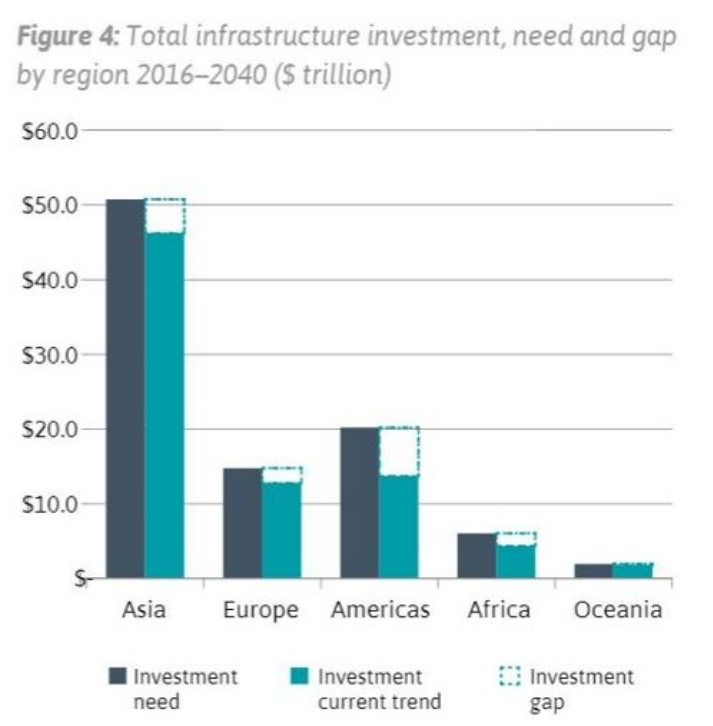
○ 한편, 이번 행사를 통해 삼성물산은 8월 중 분양을 앞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(강남 개포시영아파트)를 시작으로 래미안 DMC 루센티아(가재울뉴타운5구역),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(부산 온천2구역), 송내1-2구역 재개발, 신정뉴타운 2-1구역 재개발 등 총 5개 단지에 대한 소개도 하였음

◈ GI허브, 전 세계 인프라 전망 보고서

○ 7월25일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 협약에 따라 설립된 GI허브(Global Infrastructure Hub)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1년간 세계 50개 국가, 7개 부문의 인프라 투자수요를 연구해 '전 세계 인프라 전망 보고서'를 발표

<주요내용>

- GIH는 오는 2040년까지 한국에 필요한 인프라투자 금액이 1조4천90억달러(한화 1천572조원)로 410억 달러(45조원)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은 인프라 투자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
- 국가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은 2040년까지 94조달러가 소요되며, 그 중 가장 큰 수요는 아시아 지역에서 52조달러가 필요하다고 평가
- 204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약 20억명이 늘어 25%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, 특히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지속되면서 도시 인구가 46%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 인구의 증가는 인프라 개발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



자료 : GIH(https://outlook.gihub.org/)

- 한국의 경우 2040년까지 1조4천90억달러의 인프라투자가 필요하며, 현재 추세대로 인프라투자 지출이 이뤄지면 1조3천680억 달러를 충당해 '인프라 투자 갭'은 410억 달러로 집계
- 2040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(GDP)은 67% 증가하고 인구 증가는 200만명 수준, 한국의 도시 거주 비중은 2015년 83%에서 2040년 90%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

- 한국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프라투자를 할 경우 2040년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인프라투자 비중은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1.1%포인트 낮은 2.9%로 전망
-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인프라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를 ▲도로 ▲전기 ▲철도 ▲통신 ▲물 ▲공항 ▲항구 순으로 평가

◈ 하반기 도로공사 발주 6조4,764억원 규모

○ 7월25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'하반기 발주계획'에 따르면 총 29건, 도급액 기준으로 총 6조4764억원 규모의 국제입찰 대상공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

○ 이에 따라 올해 건설사들의 토목공사 등 공공부문 실적은 하반기 도로공사 물량 수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수주경쟁 예고

<주요내용>

- 입찰방법 기준으로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22건,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4건,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2건, 턴키(설계·시공 일괄입찰) 1건 등임
- 주요 대형 프로젝트로는 △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(11개 공구, 2조3118억원) △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(9개 공구, 2조6407억원) △수도권 제2순환(김포~파주) 고속도로 건설공사(5개 공구, 9639억원) △새만금~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(2개 공구, 4019억원) 등이 포함

<한국도로공사가 하반기 발주할 주요 고속도로 건설공사>

(단위 : 억원)

순번	건설공사명	공사금액	입찰방법	발주시기
1	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	514	종합심사낙찰제	9월
2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1공구	2171	종합심사낙찰제	
3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2공구	1801		
4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4공구	2009		
5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5공구	2018	순수내역입찰	
6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6공구	2195	종합심사낙찰제	
7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7공구	2213		
8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8공구	2113		
9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9공구	2166	실시설계 기술제안	
10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10공구	2262	종합심사낙찰제	
11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11공구	2318	실시설계 기술제안	
12	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간 건설공사 제12공구	1852	종합심사낙찰제	

순번	건설공사명	공사 금액	입찰방법	발주 시기
13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	2643	종합심사낙찰제	10월
14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	2514		
15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	3764		
16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	2659		
17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	3265		
18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6공구	2937		
19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7공구	3171		
20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8공구	2905		
21	세종~포천(안성~구리간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	2549		
22	수도권 제2순환(김포~파주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	1663	종합심사낙찰제	11월
23	수도권 제2순환(김포~파주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	3440	턴키	
24	수도권 제2순환(김포~파주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	1563	종합심사낙찰제	
25	수도권 제2순환(김포~파주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	1503		
26	수도권 제2순환(김포~파주)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	1470	순수내역입찰	
27	새만금~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6공구	2133	실시설계 기술제안	12월
28	새만금~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8공구	1886		
29	시화MTV구간 및 시화 JCT 건설공사	1067	종합심사낙찰제	

◈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 발표

○ 정부는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△소득 주도 성장 △일자리 중심 경제 △공정 경제 △혁신 성장 등 「사람 중심 경제」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을 확정·발표

○ 특히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건설투자 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건설산업에 경기침체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

<주요내용>

구분		주요내용
새정부 경제정책 방향	소득주도 성장	○ **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** - (주거)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과 함께 청년.신혼부부. 하우스푸어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· 청년 등의 수요가 높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 ※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호(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행), 매입임대리츠 2만호,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공급 ·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 개편(Sale & leaseback)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※ 주택기금, LH, 주담대 취급은행 등이 출자하여 리츠 설립, 한계차주가 주택(주담대)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 거주(재매입 가능) →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 시행
	일자리 중심 경제	○ **비정규직 감축** - 상시.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,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○ **비정규직 차별 철폐** -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,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○ **하청 근로자 처우개선** -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, 파견·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○ **임금체불 근절** :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제도기반 강화 ○ **1,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** - 법정 근로시간 단축(주당 68→52시간), 포괄임금제 규제,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·감독 강화

구분		주요내용
새정부 경제정책 방향	공정 경쟁	○ **하도급, 가맹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** -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- 기술유용, 부당단가 인하,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방안 마련 ○ **불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** -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*,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등 * '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' 운영 →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,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○ **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·영업규제 전면 재점검** -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·편익을 점검·공론화하기 위한 '국민참여형 규제개선(예 : 규제청문회, 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등)' 추진 ○ **담합 근절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 강화** - 집단소송제 도입('18년부터), 과징금 상향(즉시),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(20→30억원) 등 ※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 : (한국) 10% (미국) 20% (영국) 30% (EU) 30% ○ **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·확산** - (협력이익배분) 대기업 이익→중소협력사 공유·출연시 세액공제 - (상생협력기금)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 확대 - (성과공유)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시 세제지원 방안 강구 - (상생결제)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→중견기업까지 확대
	혁신 성장	○ **대통령 직속 '4차 산업혁명위원회' 신설(8월)** ○ **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 및 집중지원** - 자율주행차·정밀의료·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, R&D 예산·세제·데이터·인력 등 집중지원 ○ **미래 에너지 발굴·육성** - '20년까지 공공기관 ESS설치 의무화, '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% 달성

구분		주요내용
경제정책 기반 강화	리스크 관리	○ **가계부채 리스크 관리** - DTI 부채·소득 산정방식 개선(新DTI), DSR을 全금융권에 단계적 도입* 등 여신심사 체계 합리적 개편 * ('17) 은행권 표준모형 마련 ('18)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 ('19) 제도 정착 - 제2금융권 주담대 → 장기·고정분할상환 대출 전환 유도 ○ **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** - 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계 및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(국지적 과열시 즉각적 안정화방안 추진) - 지역별 탄력적·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완료(주택법 개정 : 과열·위축지역 지정),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 위해 청약제도 등 개선
	정책 인프라 혁신	○ **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** - 공공기관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, 도시재생사업 등 '반드시 필요한 분야'에 대한 투자 확대 ○ **예타 대상규모 상향**(現 500억원) - 현재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만큼 상향 규모는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 가능 -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'사회적 가치'라는 신규 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'17년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하고,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할 방침 ○ **PQ심사·적격심사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** - 예) 임금적기 지급, 정규직 채용실적, 여성고용비율 및 일·가정양립 지원 실적,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, 사회·복지서비스 제공,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 -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추진('17.11월 限) ○ **종합심사낙찰제 고용관련 가점 2배 상향** **(사회적 책임 가점 1점 중 0.4점→0.8점으로 상향)** -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추진('17.11월 限)

◈ '하도급법' 개정안, 의원입법 발의

○ 7월18일 국회 심상정 의원(정의당)은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을 대표발의함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**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**

- 원재료 가격 이외에 '임금 변동'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
- 이는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

◈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 개정안, 의원입법 발의

○ 7월17일 국회 유동수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안을 대표발의함

○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**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확대**

-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,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

  *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: 총사업비가 1,000억원 이상이고,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